

곡성군, 논콩 전용수확기 보급

논 타작물 생산 증가 위해 보급

30여 명 참가한 가운데 시연회



곡성군이 25일 곡성군 오산면 청단마을 논콩단지에서 논콩 전용수확기를 지원하고 시연회를 열었다.

시연회에는 콩 작목반 농가와 농협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논콩 전용수

확기 지원은 콩 재배과정에서 가장 힘이 많이 드는 수확작업을 기계화한 것이다.

군은 쌀 생산량 과잉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논 타작물 재배에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산면에

콩 전용수확기를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곡성군에서도 오산면은 콩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다. 그런데 콩 작목반 23농가 대부분이 고령영세농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곡성군은 오산면 콩작목반에 1대를 우선 지원했다.

콩 재배농가 임모 씨(65세)는 “고령농과 농촌인력난으로 수확작업이 어려워 콩 재배농가 감소 추세였는데 콩 수확기 지원으로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정지, 파종, 수확작업 등에 기계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타작물 재배농가의 증대와 소득 증대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해남 산림 불법 훼손 및 토사 반출 '원성 자자'



해남군 해남읍 연동 리 75-1, 75-14 (621㎡) 2필지에 단독 주택 목적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지만 산림 불법훼손은 물론 토사 반출까지 하며 불법을 일삼고 있는 사업자가 있어 주변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단독주택 사업자는 해남읍 법면 길35 자공업

사 대표로 직접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를 하던 중 질 좋은 황토가 나와 지인이 달라고 해 인정상 반출하고 운반비 목적으로 차당 6만원의 운반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거리상 운반비는 3만 원 정도이며 흙 값으로 3만 원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허가 기준에 따르면 그 행위에

대해서 토석채취는 밖으로 반출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출을 하였으며 제 54조 벌칙에 따르면 보전산지에 대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허가기준과 허가 내용을 모르고 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이에 해남군청 산림 녹지 담당자는 남아 있는 토사 량과 훼손범위를 따져 사법조치 및 행정 명령(원상복구)을 내리고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지만 어떤 명령이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보 주민은 “법을 무시하며 인정을 방치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남=서명환 기자

구례군, 국악 아이돌 타악그룹 '진명' 초청 공연 개최

세계 20개국에서 활동한 실력과

현대적 감각 가미해 볼거리 제공



구례군은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전통연희를 스트리트 뮤직과 댄스로 재해석한 퓨전 공연을 개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국악 아이돌로 불리며 각종 방송에도 출연한 타악

그룹 '진명'이 출연하여 역동적이고 새로운 전통 연희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타악그룹 '진명'은 세계 20개국 및 국내에서는 600회 이상의 공연을 선보인 실력과 함께 젊은 남성으로 구성된 비주얼을 겸비하여 국악공연 분야의 아이돌로 떠오르며 인기를 끌고 있다.

공연은 우리 국악을 기반으로 스트리트 댄스를 결합하여 관객의 눈과 귀를 모두 사로잡을 예정이다.

드라마틱을 모티브로 하여 장구 퍼포먼스를 보여주는가 하면, 사물놀이와 함께하는 비트박스를 즐길 수도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나주시, 일하고 노래하는 문화 제2회 마을합창축제 개최

합창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나주

음악 매개로 소통·화합 이뤄내

나주시는 5일과 6일 오후 7시부터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제2회 마을합창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관내 읍·면·동 20개 마을합창단원들이 올 한 해 갖고 닦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였다.

지난 2016년 '합창으로 하나되고 행복한 나주'를 슬로건으로 16개 읍·면·동에서 시작된 마을합창단은 음악을 매개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증진시키는 문화 행복 엔진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나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전라도 정명 천 년 기념식 '1,000인의 시민 합창' 공연 참여에 이어, 2018년 제1회 마을합창축제를 개최했으며 올해 들어 20개 전제 읍·면·동에 마을합창단이 창단, 운영되고 있다.

공연 첫째 날(5일)은 남평읍, 금남·성북·영강·이창동, 다도·공산·문평·반남·산포·다시·노안면 마을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둘째 날(6일)은 송월·영산·빛가람동, 봉황·왕곡·동강·세

지·금천면 합창단원들의 공연이 예정되었다.

공연장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각 마을합창단은 만18세 이상, 주1회(2시간 이상) 연습이 가능한 나주시 관내 거주자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합창단원을 상시 모집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진정한 문화행복시대, 일하고 노래하며 하나 되는 화합의 나주를 위해 열정을 갖고 마을합창을 이끌어온 모든 지휘자, 반주자, 단원들께 큰 박수를 보낸다”며, “마을합창축제의 이름답고 멋진 하모니가 깊어가는 겨울밤에 따듯한 온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담양군 수북면, 인구늘리기 위해 지역 업체와 '맞손'

담양군 수북면은 지난 25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인구늘리기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수북면자치회(위원장 국호환)와 지역 업체(수북농협 외 4개소)의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최미정 면장과 국호환 주민자치위원장, 양남군 수북농협장, 손준광 나눔의원장, 수북회관 박순우 대표, 복돼지술 불갈비 문화상 대표, 단청(구 수북감나무집) 박계하 대표가 인규문

제 해결을 위해 함께했다.

최미정 수북면장은 “수북면과 주민자치회, 참여업체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2022년까지 '미세먼지 차단 숲' 5ha 조성

화순군이 대기오염 확산과 도시 열섬현상을 차단하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미세먼지 차단 숲은 화순생물

의약산업단지 주변에 조성한다. 올해 첫 사업을 시작한 화순군은 2022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해 5ha 규

모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14억 원을 들여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주변에 1.4ha를 조성하고, 2020년에는 10억 원을 들여 화순천과 지석천 등에 1ha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이 권장하는

상록수종과 난대수종을 혼합해 다열·복층 식재 등 다기능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도심 속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번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